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소개 연구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동안 있었던 교육분과의 월례회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에는 신년포럼으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와 <교육과정 디딤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Western Trinity 대학의 Harro Van Brummelen 교수를 모시고

"My Journey Becoming a Christian Educator"라는 주제로 그가 기독교 교육과정학자로 서기까지 개인의 성장배경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교육분과는 기독교교육학자들의 학문공동체로서 기성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의 장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다른 일반학회와는 다르게 특별히 연구후속세대를 육성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분과활동을 통해 연구후속세대가 학문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수년 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교사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주된 교육분과의 활동은 학기 중에 하는 월례회(약 8번 정도)와 학술대회인데, 춘추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석박사과정학생들의 연구발표 세션이 따로 비중 있게 할애되어 있고 우수연구에 대한 시상제도까지 있다.

교육분과 월례회는 올해는 2012년부터 내년 2013년 상반기까지 "교육과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학교 교육이 연구후 급하게 이루어진 2007, 2009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놓여있다는 점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국외신학교 그리고 국내 미션스쿨 회복의 핵심에 기독교교육과정이 놓여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동안 가졌던 교육분과의 월례회활동은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에는 신년포럼으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와 <교육과정 디딤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Western Trinity 대학의 Harro Van Brummelen 교수를 모시고 "My Journey Becoming a Christian Educator"라는 주제로 그가 기독교 교육과정학자로 서기까지 개인의 성장배경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 신앙이 학문에 배어들고 기독교적 인 이론을 체계화하기까지 그의 신앙과 학문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벤 브루멜렌 박사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나치 하에서 부모님께서 바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고 사셨는지 보고 자라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배웠다. 이후 미국에 건너와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하고 기독교사로 공립학교수학교사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코디네이터와 교장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역으로 그것이 어떻게 직업과 학문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게 하였는지 에 대해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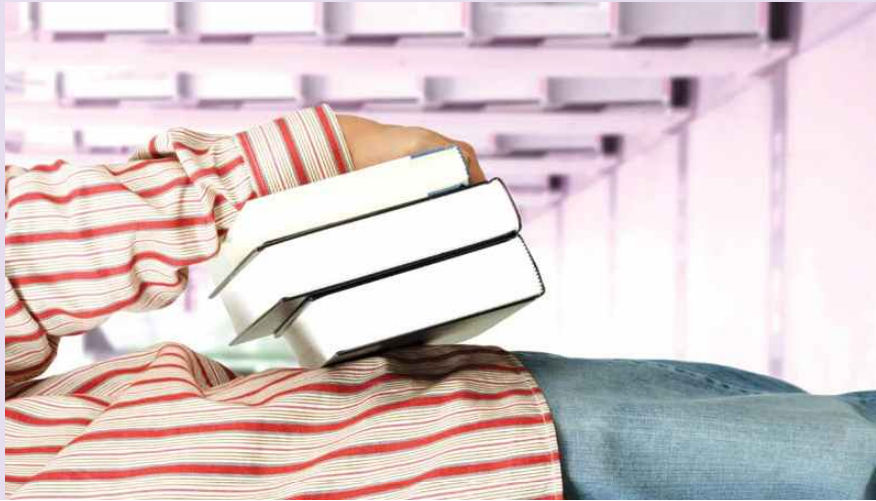
이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교육과정개발에 노력해온 두 분도 함께 모셨다. 기독교사세움터의 신기영 박사와 평택중학교 과학교사인 소정화 선생님도 기독교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자신들의 씨름과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누어주셨다. 이날 포럼은 단순히 교육자들의 회고담을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연구와 학문이 삶을 반영하

고 그것을 통해 현실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학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하는 자리였다.



최근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채택되어온 서구의 여러 이론이 우리의 교육맥락과 사교구조와 신앙적 배경과는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성과 함께 우리의 몸이 맞는 이론이 자체 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신년포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일반교육학에서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의 이론을 기용하여 우리 교육의 장에서 활용하려는 이론소버라이터로서의 머물고 있으나 하는 반성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채택되어온 서구의 여러 이론이 우리의 교육맥락과 사교구조와 신앙적 배경과는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성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이 가지는 자력으로 우리가 기독교교육계의 현장개신과 이론개발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는 데에 기학연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과 함께 우리의 몸이 맞는 이론이 자체 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신년 포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이 가지는 자력으로 우리가 기독교교육계의 현장개신과 이론개발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는 데에 기학연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외에 4월 2일에는 신기영 박사(기세티대표)의 Why Question에 의한 기독교교육과정개발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5월 7일에는 Julia Harper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를 모시고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Integrating problem based learning and brain based learning"에 대해 들었다.

신 박사의 교육과정개발모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핵심주제를 상경적으로 재규정하는 단계 2)재규정된 주제를 핵심지식, 행동기술, 핵심태도 등의 학습 목표로 진술하는 단계 3)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4가지 인식 단계 즉 경험, 이해, 분별, 적용의 단계에 따라 학습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모형은 6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학습주제를 상경적으로 재규정할 때 상경적 세계관의 적용 이후 직접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오는 주지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교육활동이 왜 필요한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과 성경 묵상을 통한 인격적 깨달음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구이론의 기계적이고 전락적인 작용과는과는 매우 달라 보였다.

Harper 교수의 강의는 최신훘이론이란 점과 기독교교육에서 교수이론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강의에서 학습은 뇌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교육학자들은 이해해야 하며 뇌는 항상 의미와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맥락에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사고력을 진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감성적인 요소가 간섭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2회기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 교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2012학년도	
9월 월례회(17일 예정)	강사 소정화/박상호 교사(IFCC:기독교교육과정연구소),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주제 2009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사 해설사 개발연구: 총론을 중심으로
10월 월례회(8일 예정)	강사 김재준 교수 (영남대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개정관계자) 주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기독교교육
11월 월례회(12일 예정)	강사 김문권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주제 2009 개정 수학교육과정과 기독교교육
2013학년도	
3월 월례회 (11일 예정)	강사 김영숙 교수 (총신대학교) 주제 영어교육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4월 월례회 (8일 예정)	강사 김중락 교수 (경북대학교) 주제 역사교육과 기독교교육
5월 월례회에서는 과학교육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월례회 활동 외에 교육분과는 기독교 교육 관련자의 메일리스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단체와 함께 월례를 바탕으로 축적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의 월례회는 학기 중에 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5시~7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지하철 2호선 이대역) 4층 세미나실에 모이고 있다. 시간절약을 위해 모임 중간한 저녁을 하며 모이고 있는데, 참여비(학생제외)는 5,000원이다. 올가을 학술대회와 내년 상반기의 학술대회에서도 각 기독교학교들의 특장적인 교육과정들이 발표되거나 교육과정개구정의 속의 과정에 대한 사례들이 발표된다면 좀 더 심도 있고 실제적인 기독교교육과정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관계자들의 관심과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기독교사들의 많은 참여와 지도를 기대한다(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정인숙 박사 010-7499-7253).



김정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다. 기독교교육과정개발, 초등교육, 도덕 및 인성교육, 교육개발 및 선교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관으로 본 교육'(2010), '아동리더십(2007)' 등이 있다.